

한미 FTA 5차협상 파행... '무역구제' 결국 결렬

'회의 중단' 초강수 먹힐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예상대로 6일(현지시간) 무역구제 분야에서 압축에 결렬됐다.

우리측이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날까지 가부 답변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지 하루만이다.

미측은 일괄적으로 수용 여부를 묻는 한국의 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반응이지만 우리측은 무역구제는 절대 관철시켜야 할 5차 협상의 최대 목표라는 점에서 회의 중단을 선언하는 강수를 썼다.

◇양측 입장차 컸던 무역구제=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은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분야 중 하나이며 국내 수출업체의 핵심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81년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6.8%인 373억달러 상당의 물품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구제를 받았다.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제로잉' 규정 철폐 등 14가지를 요

美 "수용 불가" 일축...협상여지는 남아



한미 FTA 한국측 분과장들이 7일 새벽(한국시간) 5차 협상 장소인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리 리조트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참석, 김종훈 수석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하다가 무역구제 절차 개선의 시한이 올해 연말을 앞두고 협상여지가 큰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를 선별, 이번 협상기간에 미측에 제시했다.

◇무역구제 결렬 경과=우리측은 무역구제의 경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늦

어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확정, 미국 의회에 통과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번 협상이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5차 협상의 최대 목표로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을 꼽아왔다.

그러나 미측은 5가지 요구에 대해 "답변 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일축했다.

◇물밑 접촉 진행=일단 무역구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일부 분과회의가 중단되는 등 5차 협상이 파행을 겪게 됐다. 그러나 미측의 미묘한 입장 변화 등 고위급 접촉을 통한 전격적인 해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상무장관, 韓·中 방문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이 무역 분야 유대 및 미국 수출품의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시아 방문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중국 관리들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교역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의 방문은 특히 현재 미국 몬태나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끝난 직후 곧바로 이뤄져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이유 주수도 회장 '100억 살포설' 규명될까?

檢, 용처 추적...정치권 로비 심증 굳혀

정·관계 금융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횡령금 가운데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그동안 주 회장이 횡령한 284억원의 사 용처를 추적한 끝에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를 파악했다.

주 회장이 제주 골프장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60억원과 채무 변제에 쓴 30억원 등의 용처는 확인됐으나 100여억원의 행방은 묘연하다

는 계 검찰의 전언이다. 이 돈은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설을 처음 제기한 '국정원 보고 서'에 적힌 100억원과 비슷한 액수다.

이는 주수도 회장이 사정기관의 수사를 차단하고 제이유그룹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유력인사들에게 막대한 돈을 살포했을 것이라는 향간의 의혹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 회장이 용처가 불분명한 100억원 상당의 수표를 돈세탁 등의 수법으로

현금화한 뒤 정치권과 사정기관 실력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주 회장의 가명 및 차명 계좌를 추적하는 작업과 별도로 돈 봉투나 사과상자 등을 이용한 고전적인 금품 전달 정황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유력 인사들의 가족을 다단계 사업자로 끌어들이고 투자금을 대주고 수단을 제공 하는 수법으로 신종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는 의혹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이회창씨의 독설



임동욱

서울 취재팀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 5일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4년 만에 당이 주관하는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주최의 '한나라당 포럼' 강연에 나선 것이다.

대권 3수에 나서지 않는다는 정치적 안락의 따가운 시선 속에 이 전 총재는 강연장에 물러든 당 관계자들과 여유롭게 악수를 나누는 등 차떼기 대선자금의 약동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이 전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정계 원로로서 현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적 대안과 건강한 한나라당을 위한 조언을 던지기보다는 전·현 정권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이 전 총재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친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득세하고 심지어 간첩까지도 활개치고 다니는 사회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노무현 정권은 정치적 파산상태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표를 얻기 위해 햇볕정책 등 '김대중주의'에 아첨하고 있다"며 못마땅한 심경을 나타냈다. 여기에 지난 대선 패배와 관련, "시대변화 같은 것보다는 캄짜소나 네거티브 캠페인이 직접적인 패인이 된 것은 틀림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총재가 대선에서의 경쟁자였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어떤 긍정적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은 정계 원로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국정 운영의 파트너였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색깔론적 매도는 최소한의 정치 도의를 저버린 행위다.

한나라당의 호남 구애에 대한 평가도 그가 지난 두 번의 대선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전 총재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곤혹스럽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론은 오히려 이 전 총재의 분발(?)을 기대하고 있다. 극우적 성향의 이 전 총재의 발언이 한나라당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수구보수적 색깔을 더욱 진하게 할 수 있는데다 한나라당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 총재의 행보는 한나라당에 '계륜(鷄肋) 같은 존재'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야당 총재로서 두 번이나 대선에 출마, 낙선한 바 있는 정계 원로가 정치권으로부터 계륜 취급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씁쓸하다. 이 전 총재는 지난 대선 패배 이유를 따지고 전·현 정권에 대해 비난에 나서기 보다는 국가 미래에 대한 충심 어린 고언으로 성숙한 정계원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ga-wi restaurant. It features the restaurant's logo, a list of menu items including '연말연시모임', '상견례', '직통세미나', '동전치', and '고척연', and contact information: 'TEL. 062-234-5815, 234-1115'.

Large advertisement for '광상무 나이트' (Kwang Sang Mu Night). It features a man in a suit pointing upwards and the text '매일밤 8시부터 췌췌췌 애들은가라!!' and '실운도 오늘 출연'. At the bottom, it says '무량천곡 100%' and '광상무 나이트 (성무지구 롯데마트 빌딩)'.

Advertisement for '신행안내' (Newspaper Guide). It contains a grid of text providing information about various news sections and services.